

다문화와 한국불교의 화쟁사상

조수동(대구한의대)

[한글 요약]

국제결혼 이주자나 외국인노동자들의 증가로 다문화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일 것이다. 한국사회는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해 포용적이지 못하고 그것을 일방적 동화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다.

다문화사회로 점차 진행됨에 따라 법과 제도의 변화, 외국인 이주자 지원정책의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가치와 덕목의 수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대의 신념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표하는 지속적인 대화와 보편주의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가치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불교의 화통성은 투쟁이나 논쟁을 지양하고 화해와 관용, 평등의 정신으로 상대를 인정 존중한다. 원효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신분, 귀천, 재산 등 현실적 차이가 있지만 본래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없이 모두 평등하다. 연기설에 근거하면 인간은 상호 관계하고 있는 존재이다. 상호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가진 소통이 필요하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성과 차이성, 진속의 가치를 조화 화해시키는 원효의 화쟁이론을 통해 이상적인 다문화사회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주제분야 : 철학, 한국불교, 다문화.

주 제 어 : 다문화, 국제결혼, 원효, 소통, 화쟁사상

1. 서언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적인 이주, 국제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구 구사회주의 국가의 국적을 가진 해외 동포들의 이주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도 급속히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낮은 출산율,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어 가는 속도 등에 의해서 외국인 노동자나 고급인력의 국내 유입은 이후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라는 자긍심 아래 국민과 민족을 동일시하고, 법률적인 국민과 혈통에 의한 민족의 범위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 이주자가 전체 인구의 2%를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2007년 8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이 실제와는 다른 단일민족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의 과학적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인이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북방인, 남방인 등 많은 민족이 우리나라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 다민족 사회를 대하는 우리들의 인식과 태도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우리 사회는 동질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주자들이나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순혈주의적 동질성의 닫힌 마음으로는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혈통과 국적이라는 유일한 잣대로 이민정책을 고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책적 변화와 아울러 한국인들의 나와 다른 문화와 인종을 대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바라보는 철학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인종과 문화가 다른 이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통과 조화의 원리를 우리는 조화와 화합을 강조하는 한국불교의 원융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원효의 화쟁사상은 동일과 차이의 대립을 화해 조화시킬 수 있는 원리이다. 나와 남을 가르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참다운 모습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 원효에 의하면 이원론적인 사고에 의해 생기는 논쟁을 해결하는 길은 어떤 절대적이고 편파적인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융통성 있는 비독단적 방법이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종파적이며 독단적인 태도를 배제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인종적 차별을 금지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일체만물은 연기적 존재이기에

서로 관계하고 있다.不二적 화쟁사상에 따를 때 소수자인 이주민들을 나와 다른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들은 모두 나와 서로 조화롭게 상생하여야 할 존재들일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적 현황을 살펴보고, 다문화사회의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을 통해 공존과 조화의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원효의 화쟁사상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2. 다문화의 의미

문화라는 개념은 여러 계층에서 복잡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는 쉽지 않다. 문화는 특정한 삶의 방식의 표현이면서 그 삶의 방식이나 특정한 문화에 내재되거나 표출된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작업이다. 우리는 하나의 문화 안에서 태어나 그 문화를 답습하며 정체성을 쌓아간다. 다문화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은 타문화를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포용적이지만, 단일문화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이질적인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다. 그들은 타문화에 대해 수용보다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기 문화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다.

민족국가는 그 국가에 거주하는 동일민족이 하나의 국가의 국민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국가는 역사적, 정치적 산물로서 정치 공동체이자 문화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정치적인 공동체란 동등한 시민 자격을 갖춘 이들이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국가의 질서를 의미한다. 문화 공동체로서의 민족(cultural nation)은 동일한 혈통, 언어, 역사, 문화로 이루어지는데, 외부와 구분되는 자신들의 공동의 언어를 가지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신들의 공동의 세계를 불가변의 자연스러운 질서로 상상함으로써 형성된다.¹⁾ 민족국가의 틀 속에 존재하는 성원은 문화적 요소를 공유한 민족의 성원이자 이를 기초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국민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자격을 지닌 이들이 국가가 통치하는 일정한 영토 안에 거주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민족국가 성원으로서는 활약하면서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간과하는 동시에 외부와의 구별을 극화시켜 자신들의 공동체성을 실현하게 된다.²⁾

1) 황정미·김이선·이민진·최현·이동주,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15쪽.

2) 같은 책, 16쪽.

민족국가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문화, 관습, 가치관 등이 가장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자민족주의(Ethnocentrism)라 한다.³⁾ 자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선민의식과 타민족과 문화에 대한 배타성을 나타내게 된다. Wimmer에 따르면 인종차별주의나 외국인 혐오의 배후에는 서로 다른 네 가지 논리가 나타난다고 한다. 첫째,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인종차별은 이주민 집단과 원주민 집단 간의 경쟁과 현실적인 이익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종차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 된다. 둘째, 기능주의 이론은 이주자나 소수자는 본질적으로 원주민과는 다른 이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담론이론은 이주민 정책은 공식적 또는 준 공식적 지배집단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주에 대한 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담론들은 다수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인종차별주의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넷째, 인종차별주의의 근거를 이주자나 소수인종의 특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집단의 특성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다.⁴⁾ 그런데 자민족주의는 한 나라의 정체성이나 화합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다양한 인종의 다문화 현상을 받아들이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문화사회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족국가 안에서 다양성은 대체로 거부된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국가의 동질성에 대한 신념은 탈국가적 이주민의 증가로 무너지고 있다. 한 국가가 다문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다양성과 다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조화롭고 화회적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라는 개념은 인간 사회의 다양성과 인구학적으로 어떤 민족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연구하고, 다양한 민족들이 내놓는 여러 문화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다문화란 한 국가 안에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현실 사회이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인구나 문화의 다양성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서 변화가 초래된다. 또한 이주자뿐만 아니라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쪽의 변화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조

3) Eunsook Lee Zeilfelder,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편,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족』, 양서원, 2007, 21쪽.

4) 황정미·김이선·이민진·최현·이동주, 같은 책, 32쪽.

화와 화합의 사회통합의 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킴리카(Will Kymlicka)는 다민족(multinational)사회와 복합인종(polyethnic)사회라는 두 가지 유형의 다문화사회를 구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기존의 문화적 실체들이 새로운 한 국가 속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때의 새로운 국가는 흔히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으로 불려지는 국민집단들로 구성된다. 그와 달리 복합인종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은 대규모 이민으로 형성된 인종집단에서 비롯된다. 그러한 집단은 국가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국민을 이루는 구성체로 간주되지는 않는다.⁵⁾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의도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이 개념에 대한 철학적 정의나 정치적인 지향, 방법론 등에 있어서 아직 합의된 보편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는 일반적으로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프티로베르(Petit Robert) 사전은 다문화주의를 간단하게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⁶⁾ 그러므로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 속한 개인, 집단, 국가가 평등, 상호 존중,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보편적 가치라 하겠다.⁷⁾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 혹은 소수자들의 특별한 삶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정체성 정치 혹은 정체성 인정의 정치를 뜻하는 것이다.⁸⁾ 철학적으로 다문화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논쟁의 중심에 있다. 자유주의자는 시민권자로서 전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개인이 사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란 각 개인에게 있어서 규범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꼭 필요한 조건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민족적 문화적 소수에 대해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원칙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들 사이의 논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언제나 동화주의적 유형의 입장에 빠져버리고,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의 고립과 분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⁹⁾

인종 간 문화 간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단일민족의 국가개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단일민족의 국민국가를 고수할 경우 소수의 이민자들은 자신의

5)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역, 한울, 66쪽.

6) 같은 책, 88쪽.

7) 김형인, 「미국의 다문화정책과 교훈」, 『국회도서관보』 325호, 2006, 17쪽.

8)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2009, 25~26쪽.

9)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같은 책, 106~107쪽.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버리고 다수에 동화될 것을 강요받게 된다. 소수의 이민자들도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향유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권리가 있다. 문화적 차이는 존중되어야지 그것이 차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건서는 다문화주의의 목적을 “다문화의 보장, 주류사회와 비주류사회 간의 상호 이해 촉진, 소수민족 집단 간의 교류, 사회평등 보장, 구조적 불평과 차별 극복, 사회통합 등의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⁰⁾

한 국가에서 다문화와 다인종을 받아들이는 형태에는 동화주의적 접근, 다원주의적 접근, 차별적 포섭/배제라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동화주의적 접근은 잠재적 소수집단이나 이민자들은 다수집단의 사회 속에 융해되며, 문화적 적응이라는 단선적 과정에 힘입어 결국 다수집단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민자와 소수 국민집단의 성원은 그 특징과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게 보존된다. 이것은 다수에 의해 정의된 다수에 적합한 문화적 도식과 행태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동화주의 사회는 대부분 자기 영토 내에서 탄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정책을 시행하며 귀화 절차도 간단하다.

둘째, 다원주의적 접근은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이민으로 생겨난 소수 민족집단이나 소수 국민집단, 또 때로는 원주민 소수집단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이 공적으로 인정되며,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다. 국적과 민권정책은 속지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여러 영역에서 소수집단에 대해 특혜정책이 주어질 수도 있다.

셋째, 차별적 포섭/배제의 접근이다. 어떤 소수집단은 그 존재가 인정되고, 어떤 집단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국적과 민권정책은 제한적이며, 국적 부여의 기본원칙은 속인주의 혹은 혈통에 의한 권리이다. 국적의 권리는 외국인들을 사회 내에 포섭하기보다는 배제하는 수단이 된다.¹¹⁾

우리나라는 차별적 포섭/배제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혈통에 의한 속인주의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을 아버지로 한 사람만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국적을 부여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나도 부모가 미국인이며 자녀는 미국인이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도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자녀는 외국인인 된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귀화에도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게 되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여러 불일치가 생겨나게 된다. 그 원인은 소통의 부재, 인종, 성적 차별, 편견과 고정관념 등이라 할 수 있

10) 구건서,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체계』, 『현상과 인식』 90호, 2003, 46~47쪽.

11)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같은 책, 72~78쪽 참조.

다. 특히 소통 부재의 일차적 책임은 언어적인 문제이고, 둘째는 문화적 차이의 몰이해이며, 셋째는 상대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언어적 장벽은 소통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왜곡과 단절을 생기게 한다. 또한 언어적 장애는 2세까지 연결되어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 부모와 자식관의 관계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화적 차이의 몰이해와 정보 부족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나와 다른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소통은 인간이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나 지식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찾고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다문화주의의 이념이 온전하게 실현된 곳은 없다.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만큼이나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미국이 비교적 다문화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극단적 다문화주의자들의 인종주의는 불편한 현실로 남겨 두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 역시 문화 분리주의자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호주와 같은 나라는 동화주의 즉 백호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동화주의 모형인 용광로주의로 돌아간다. 이것은 성급한 다문화주의가 오히려 문화 분리주의를 가속화시켜 사회통합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¹²⁾

이상적인 다문화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신념이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수용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른 것에 대한 이해나 관용의 정신이 부족할 때 여러 불화와 갈등이 생기게 된다.

3. 한국의 다문화 현황

한국인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순혈주의에 의한 민족주의에 매우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군의 후손으로서 단일민족의 단일국가라는 신념,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문화교류의 한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적 경향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독립운동으로 강화되고, 군사독재시대에 국가주도형 개발정책의 이데올로기로 이용되면서 우리사회에 더욱 뿌리 깊게 정착되었다.

12) 김영필,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위한 철학적 변론』, 『철학논총』 59, 새한철학회, 2010, 58쪽.

민족주의는 민족의 단결과 산업화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외국 이주자들에게는 배타적 차별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차이나타운이 없는 유일한 나라로 화교 공동체는 철저히 비시민권자로서의 삶을 강요받았다. 그리고 한국전 이후에 불가피하게 생겨난 혼혈인들 역시 차별과 멸시 속에서 삶을 살아야만 했다. 그런데 직업적인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민의 증가는 한국인들에게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게끔 하고 있다. 특히 피부색이나 경제적 이유로 인해 특정 외국인들에 대해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 온 한국사회는 그들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으로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산업연수제도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처음 받아들였다. 2005년에는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등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이민제도가 아닌 3년이라는 단기간 고용 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이주노동자 제도 즉 교체 순환정책이다. 그렇지만 체류기한이 끝난 노동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거나 내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기도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이 100만 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체류 외국인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며, 외국인 체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¹³⁾ 불법 체류자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임금체불, 부당해고, 인권유린, 산업재해, 직업병 등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게 맞추어져 있다. 그것은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민족주의적이며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한국화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을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결혼 이주여성들을 한국인 며느리로 동화시키고 이들 가정의 혼혈자녀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13) 황정미 외, 같은 책, 3쪽.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로 한국인 여성들이 외국 남성과 결혼하여 외국으로 이주해 갔지만, 외국인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통일교에서 일본인 여성들과 한국인 남성들의 국제 합동결혼을 통해서 이다. 그리고 1995년 농촌총각들의 결혼을 위해서 중국동포 여성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2005년 농촌지역에서 결혼한 가정의 40% 이상이 다문화 가정일 정도로 농촌을 중심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8년 현재 결혼 이주 여성은 전체 국내 거주 외국인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국적도 25개국이 넘는다.

그런데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이주 여성들은 대부분 한국말을 할 줄 모르거나 한국에 대한 이해가 없이 결혼하였기 때문에 언어적 불소통과 나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족생활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정책도 문화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적응시키고 동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화 간 차이로 인한 갈등도 일어나고 있다. 한국정부나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통합되어야 할 대상이지 결코 다문화사회의 대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언어적 불소통은 2세가 태어났을 때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엄마가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말이 늦고, 엄마와 아이와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연 아이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상급 학교의 진학률도 떨어진다. 또한 피부색이나 생김새, 어둔한 말로 인해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혼혈아이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미워하거나 멸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또한 한국인의 뿌리 깊은 혈통 위주의 사고방식은 이들 혼혈인들을 ‘우리’라는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를 주저한다. 그들을 우리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점차 늘어나는 결혼 이민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 및 사회진출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결혼 이주자들과 그 자녀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언어 소통이나 상이한 문화에 대한 대비 없이 졸속으로 시행한 결혼 이주 정책의 결과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율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주여성을 무시하거나 소유물로 생각하는 비하의식이나 가정폭력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 이주민과 그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고 그들을 우리사회의 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화 교류와 문화의 수용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인도 있지만 우리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긍정적 효과도 크다.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은 분명 우리의 시야를 크게 넓혀 다양한 사람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안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4. 한국불교의 소통과 조화의 이론

1) 소통과 화해

이질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여러 다른 인종이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통한 상호 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즉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해 다르지만 다르지 않게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사회에서 여러 인종이 하나가 되어 평등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며, 다른 것에 대해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소통의 부재에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한 소통의 이론을 한국불교의 원효의 견해를 토대로 고찰해 보자.

연기설은 모든 존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호 관계하고 상호 의존해 있음을 말한다. 상호 의존해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라도 나와 무관한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相生의 존재이다. 상생의 원리를 자각할 때 평화가 찾아온다. 그렇지 않고 상호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존재로 판단되면 증오와 시기, 폭력이 난무하게 된다. 연기적 세계관은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러 민족이나 국가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한다. 연기의 원리 속에서는 나와 타자가 서로 다른 존재자가 아니다. 나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라는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 이때 각 존재자들은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외형적으로 구별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이고, 분열과 갈등이 없는 조화로운 존재이며, 상호 의존하면서 관계하고 있는 존재이다.¹⁴⁾

다문화사회에서 인종이나 문화 간에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14) 조수동, 『불교의 평화사상』, 『인간과 사상』 20집, 한국동서철학연구원, 2008, 43쪽.

먼저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상대도 항상 나와 같아야 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상호 평등의 관점에서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일 뿐임을 인정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

소통과 화해의 이론은 원효의 화쟁사상에서 잘 나타난다. 원효의 화쟁이론은 불교 내의 쟁론이나 가치관의 화해를 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신라 불교의 쟁점사항이었던 唯識과 中觀의 대립, 세속적 진리(俗諦)와 출세간적 진리(眞諦)에 대한 차별적 가치관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승기신론별기』에서 원효는 중관과 유식의 근본차이를 말하기를, “『중관론』 등은 파하고 파하여 세울 길이 없으니 이것은 가고는 두루 하지 못하는 논이요, 『유가론』 등은 세우고 세워서 파할 길이 없으니 이것은 주고는 빼앗을 줄 모르는 논”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대승기신론』이야말로 이 두 결함을 지양한 논이라 하여, “파하지 않음이 없으면서 마침내는 허용하고, 세우지 않음이 없으면서 마침내는 빼앗으니 참으로 모든 파의 祖宗이요, 모든 쟁론의 評主이다.”¹⁵⁾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논은 『능가경』에 의해 眞(출세간)과 俗(세간)이 別體라는 집착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眞과 俗이라는 말은 출세간적인 진리와 세속적인 진리를 가리킨다. 이것을 보면 원효는 『대승기신론』을 有와 無을 중심으로 하는 유식과 중관의 대립뿐만 아니라 불교의 차별적 가치관을 해소하는 이론으로 보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원효의 화쟁사상은 서로 간의 차별을 인정하고 조화로운 하나를 형성하는 이론이다. 그것은 하나가 아니면서 둘을 융섭하는 것이다. 원효의 이러한 화쟁의 논리는 『금강삼매경론』에서 不一不二, 無二而不守一 등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不一不二是 존재를 과정과 생성의 관계로 파악하고, 이 세계는 서로 간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라 본다. 전체와 부분이 상호 관계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가 곧 부분이고 부분이 곧 전체가 되는 관계로 인식한다. 원효의 불일불이론은 동일성에 근거한 우열이 아니라 차이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논리이다. 이울러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며, 투쟁과 모순이 아닌 相生의 사유체계이다.

원효의 同異不異論에 따르면 같음(同)과 다름(異)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름 즉 차이에서 같음(동일)을 분별해야 한다고 한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동일(同)과 차이(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5) 『대승기신론별기』, 한국불교전서 1권, 678쪽 상.

성인에 있어서 행위는 理와 더불어 일미이고, 두루 통하는 理는 지혜와 더불어 평등하다. 평등하고 일미이기 때문에 성인과 다를 수 없다. 관통함이 있고 구별이 있기 때문에 성인과 같을 수 없는 것이다. 같을 수 없다는 것은 같지만 다른 것이고, 다를 수 없다는 것은 다르지만 같은 것이다. 같다는 것은 다름에서 같음을 구별한 것이요, 다르다는 것은 같음에서 다름을 밝힌 것이다. 같음에서 다름을 밝힌다는 것은 같은 것을 나누어 다름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에서 같음을 구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없애고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진실로 같은 것은 다른 것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다른 것은 같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단지 다르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같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에는 둘도 없고 구별도 없다.¹⁶⁾

같다(同)는 것은 다름(異)에서 같음을 구별한 것이고, 다르다(異)는 것은 같음(同)에서 다름을 밝힌 것이다. 같다는 것 즉 동일성은 차이에서 동일성을 갖는 것을 구별한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동일성에서 차이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 원효는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동일이 곧 차이라고 주장하는가? 일체 만물은 연기의 원리에 의해 이것과 저것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同과 異는 둘 다 無自性 空이 된다. 그래서 양자가 같다고 하면 같고, 다르다고 보면 다르지만, 같다고만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음에만 집착하거나 다름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릇된 견해에 빠지게 된다. 같음을 보면서도 다름을 볼 수 있고, 다름을 보면서도 같음을 볼 수 있는 열려 있는 태도를 가질 때 일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원효는 同異不異論을 통하여 무애자재하게 일체 만물을 볼 것을 말하고 있다. 서로를 대립의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緣起 空을 근간으로 한 相待性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되면 나와 타자 사이의 진정한 차이와 내 안의 타자를 발견함과 동시에 타자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나와 타자, 내 안의 타자와 타자 안의 나를 차이로 포용하는 것이다. 원효는 허망한 分別識에 의한 相對二元의 同異가 一味觀行의 실천을 통해 일미평등을 체득하여 歸一心源하게 되면, 무분별한 진실에 의한 연기의 相待인 不一不異가 되어 饒益衆生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원효가 화쟁을 위해 주로 사용한 논리는 상반된 두 주장이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다는 非然非不然의 논리이다. 非然은 부인하는 것이며, 非不然은 함께 인정하는 것이다. 非然非不然은 부분적인 진리도 그것이 붓다의 말씀에 어긋나

16) 『금강삼매경론』 중, 626쪽 상.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임이 인정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진리일 뿐 완전한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진리의 부분성도 타당하다고 인정하지만 완전한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쟁론에 있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보다 더 완성된 귀결 즉 화합의 귀일이 최상의 방편이라는 것이다.

화쟁사상은 주체와 타자를 대립시키지도 분별시키지도 않는다. 양자를 융합되 하나로 만들지도 않는다.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중간도 아니다. 주와 객, 주체와 타자가 서로를 비취주어 서로를 드러내므로 스스로의 본질은 없고 다른 것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낸다. 진리란 것은 진리가 아닌 것과 차이를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와의 차이를 통하여 진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과 유는 둘이 아닌 相卽不二이다.

이러한 원효의 화쟁사상은 불교 내의 異諍의 화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다양성을 조화롭게 화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원리로도 적용된다. 원효에 의하면 모든 대립의 원인은 상대적 현실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眞과 俗, 生과 死, 중생과 부처 등의 상대적 가치에서 대립과 갈등이 생겨난다. 우리들의 삶은 이 끝없는 다툼과 갈등의 연속이다.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대립과 갈등의 근원이 된 상대성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토대 즉 一心 위에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각은 분별과 집착을 타파해 버릴 때 가능하다. 곧 一心의 원천을 회복할 때 이 다툼은 지양될 수 있다. 원효에 의하면 백가의 쟁론이 모두 이 一心에서 파생된다. 일심으로 돌아간다면 모두가 원융하게 된다.

2) 眞俗一如와 평등

원효는 同異不異論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眞俗不二, 일미평등을 말하고 있다. 원효에 의하면 범부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眞諦와 俗諦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심으로 화해된다. 원효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심과 이문 안에 일체의 불법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뜻이 무엇인가? 앞의 두 구절(因緣所生義 是義滅非生)은 俗諦를 융합하여 眞諦로 삼아서 평등의 뜻을 나타낸 것이고, 아래의 두 구절(滅諸生滅義 是義生非滅)은 진제를 융해하여 속제로 삼은 것으로 차별문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진제와 속제가 둘이 아니지만 하나를 지키지도 않는다(眞俗無二而不守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곧 일심이다. 하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들면 둘이 된다. 이와 같은 것을 一心二門이라 한다.¹⁷⁾

먼저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因緣所生義 是義滅非生”을 해석하여 원효는 이것을 속제를 융합하여 진제로 삼아서 평등의 뜻을 나타내었다고 한다.¹⁸⁾ 즉 차별 속의 평등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生은 생이고 滅은 滅이다. 그러나 연기의 원리에 따를 때 생겨난 것은 인연 화합에 의한 잠시 동안의 존재로 그 본질은 적멸(공)이다. 연기한 것이므로 실체로서는 공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실로 無이고 非有이다. 이것이 속을 융합하여 진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滅諸生滅義 是義生非滅”을 해석하여, 이것은 진제를 융해하여 속제로 삼아서 차별의 문을 나타낸 것이라 하였다.¹⁹⁾ 즉 평등 속의 차별을 나타낸다. 적멸은 적멸이 아니고 생이다. 적멸이 곧 생이므로 적멸은 적멸이 아니다. 이러한 입장은 현상적인 입장에서 연기의 존재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법은 연기의 원리에 의하면 무자성 공이다. 그렇지만 空을 체로 하여 인연에 의해 생겨난 법은 假有로서 있다. 그런데 假有로서 존재하는 세속의 법은 어디까지나 空을 본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적 존재이지 진실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眞을 융해하여 俗으로 삼는다고 하는 의미이다. 요컨대 우리가 상대 이원의 모든 망념 분별을 벗어나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 궁극적 진리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근본 무명에 의해 생겨났던 이원적 가치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원효는 이론적으로는 一心과 二門의 회통을 통하여 궁극적 진리에 이르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부처와 중생, 깨달음의 세계와 일상의 세계가 둘이 아니라 하나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심의 본원(心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본래의 자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心源은 바로 여래장으로 無相, 寂滅, 絶對空, 無得 등을 근본으로 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은 진정한 주체이며, 無二一味의 마음이다.

一心은 세간·출세간의 모든 법을 포섭하지만, 染과 淨의 현실적인 모든 차별을 초월하고, 또한 心源에서 그것들을 포용하여 화합하고 있는 포괄적인 것이다. 一心은 본래 染·淨과 眞·妄이라는 일상적인 모든 차별의식을 넘어서 있다. 일심은 일체의 대립을 초월해 있고, 일심이라는 관념에도 한정되지 않는다. 『금강삼매경론』에서는 일심의 이러한 포괄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7) 『금강삼매경론』, 658쪽 하.

18) 같은 책, 658쪽 하.

19) 같은 책, 658쪽 하~659쪽 상.

하나가 아니지만 둘을 융합하였으므로 眞 아닌 현상(事)이 일찍이 俗이 된 것이 아니고, 속 아닌 이치(理)가 일찍이 眞이 된 것도 아니다. 둘을 융합하였지만, 하나가 아니므로 진·속의 본성이 세워지지 않음이 없고, 染·淨의 現相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다. 극단을 벗어났지만 중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무의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옳고 그름(是非)의 뜻이 두루 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에 破함이 없지만, 破하지 않음이 없고, 세움이 없지만 세우지 않는 것이 없다. 이치라고 할 수 없는 지극한 이치(無理之至理)이며, 그러하다고 할 수 없는 큰 그러함(不然之大然)이라 할 수 있다.”²⁰⁾

일심은 변치 않는 근원자이기 때문에 홀로 청정하다. 그것은 眞과 俗을 융합하고 있는 것으로 해탈자의 마음이다. 일심은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감이 없어서 空에도 有에도 있지 않다. 또한 일심의 체는 본래 적정하여 있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일심은 양 극단을 떠나 自他가 평등하여 둘이 없는 것이다. 원효는 일심이 일미평등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명칭과 뜻(名義)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思議할 수 없는 명칭과 뜻의 相이다. 명칭과 뜻의 상이 일치되어 전도됨이 없고 변화함이 없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명칭과 뜻은 能所를 멀리 떠나서 일미로 평등하기 때문에 如如한 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명칭과 뜻은 평등하고 여여한 상이며, 모든 부처와 여래의 體이기 때문에 여래의 여여한 상이라고 하였다. ……“중생의 心相의 相 또한 여래다”라고 한 것은 모든 중생의 분별심의 상은 상이 곧 상이 아니며 평등하지 않음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저 상 역시 여래이다. 이상으로 평등의 도리를 바로 세웠다.²¹⁾

일미평등은 법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이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이다. 일미평등을 體라 하면 일체 존재는 여래 아닌 것이 없다. 주관과 객관(能所)이 平等하여 둘이 없다는 것은 事事無碍를 표현한 것이다. 법은 그대로 마음에 모두 나타나 一卽一切 一切卽一이 된다. 일심은 법계이고 제법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歸一心源이라는 것은 能所平等無二하고, 絕對無二한 법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본래의 자기, 자기의 진정한 주체이기도 하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나타낸 것이 곧 無二而不守一 不守一而無二이다.²²⁾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중생과 여래가 평등하다면 범부 중생의 汚染分別이나 三界의 설명에 대해 원효는 本覺, 始覺, 不覺의 세 방면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

20) 『십문화쟁론』, 한국불교전서 1권, 604쪽 중.

21) 『금강삼매경론』, 640쪽 하.

22) 佐藤繁樹, 『원효의 화쟁논리』, 민족사, 1996, 327쪽.

하고 있다. 첫째, 本覺은 일미평등의 무분별의 경계이므로 분별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생과 여래는 일미평등이고, 삼계는 없다고 하였다. 즉 染而不染心이다. 둘째, 不覺은 중생에게 비록 자성정정심이 있다고 해도 중생은 無明不覺이기 때문에 이 일미평등의 원리를 깨달을 수 없어 망심분별에 의해 삼계를 분별하고, 대상을 실유로 집착한다. 즉 不染而染이다. 셋째, 始覺은 識에 의해서 일미평등을 주제로 하는 자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觀行을 닦음에 의해 분별망상의 허망한 경계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²³⁾

원효는 一心 一法을 圓融不二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평등의 입장과 차별의 입장을 융회할 수 있었다. 평등즉차별이고, 차별즉평등이다. 범부들은 분별의 입장에서 일체를 대상화하고 이분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인식하는 입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기의 본래의 깨달음의 세계를 버리고 분별망상의 세계에서 자기를 엮어매고 한정하여 보고 있다. 여기서 평등은 평등이고 차별은 차별이다. 자기는 자기이고 타자는 타자이다.

결국 우리들이 자신의 본래의 성품, 본래의 자기를 본다면 차별과 평등은 구별이 없다. 우리가 자신과 타자를 구별하여 보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자신과 타자라는 이원적인 분별을 짓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집착과 분별의 그물에 걸려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다름을 다르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을 엮어매고 있는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

이같이 원효는 세속적 진리와 출세간적 진리 사이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론 및 실천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 불교의 실천운동에 몸을 던졌다. 원효는 당시 신라불교가 왕실이나 귀족 등 지배계층 중심이 되면서 일반민중과 유리되는 등 모순이 심화되고 있었던 점을 통찰하고 왕실이나 귀족 중심의 불교를 대중 속에 심고자 하였다. 그는 스스로 대중과 함께 하면서 무애 자재한 행동을 통하여 대중의 교화에 노력하였다. 부처와 중생, 聖과 俗이 둘이 아니라는 眞俗一如의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고 난 뒤에도 원효는 서로 갈라져 있는 민심을 하나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고구려와 백제의 땅을 오가며 관용과 평등의 법을 설하였다. 그것은 아직도 전국에 남아 있는 원효의 이름을 탄 수많은 사암이나 지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같이 원효는 화해와 진속의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쳤던 것이다.

23) 『금강삼매경론』, 641쪽 상.

5. 결어

세계는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화, 지구화를 향하여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결혼 이주자나 외국노동자들의 증가로 다문화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소수자가 다수자의 문화를 더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일 것이다.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점차 진행됨에 따라 법과 제도의 변화, 외국인 이주자 지원정책의 필요성 등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들을 우리 국민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쉽게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인종적 단일성 내지 동질성을 전제로 형성되어온 한국인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가치와 덕목의 수정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양성과 단일성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다양성과 차이 혹은 이질성에 대한 지나친 예찬은 문화적 공존이 아닌 병존 그리고 분리로 차이를 넘어 소통으로 이르지 못하는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병존과 분리만 가속화시킨다. 동시에 단일성, 동일성에 대한 집착 역시 문화적 흡수와 동화로 나아간다.²⁴⁾

현실적으로 보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통합의 대상이지만, 이주자들의 우리 사회에로의 통합은 이주자와 한국인 서로 간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차이에 대한 이해와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 타 문화에 대한 참된 이해와 포용의 자세로 서로의 문화를 알리고 노력하고, 서로의 문화에 개방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주민들을 빨리 한국화 시킬 것인가 하는 일방적인 동화가 아니라 그들과의 공생 내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차별적 태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신념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표하는 지속적인 대화와 보편주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가치 교육이 필요하다.

불교는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전파, 계승되는 천여 년의 세월 동안 각 문화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평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종교이다. 특히 한국불교의 회통성은 투쟁이나 논쟁을 지양하고 화해와 관용, 평등의 정신으로 상대를 인정 존중하고 그것을 토대로 불성을 드러내게 하고, 나아가 불국토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원효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부처님의 자식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신분, 귀천, 재산 등 현실적 차이가 있지만 본래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없이 모두 평등하다. 연기설에 근거하면 인간은

24) 김영필, 같은 논문, 58쪽.

상호 관계하고 있는 존재이다. 상호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가진 소통이 필요하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성과 차이성, 진속의 가치를 조화 화해시키는 원효의 화쟁사상을 적극 응용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숫타니파타』

원효, 『대승기신론별기』, 한국불교전서 1권,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원효, 『금강삼매경론』, 한국불교전서 1권,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원효, 『십문화쟁론』, 한국불교전서 1권,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Eunsook Lee Zeilfelder,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편,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족』, 양서원, 2007.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역, 한울, 2008.

엄한진,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문화다원주의적 이민 논의」, 『2006후기 사회학대회자료집』, 2006.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2009.

오법안, 『원효의 화쟁사상연구』, 흥법원, 1992.

은정희·송진현,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일지사, 2000.

이현정,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 있다, 서울메이트, 2009.

조수동, 『불교사상과 문화』, 세종출판사, 2003.

황정미·김이선·이면진·최현·이동주,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佐藤繁樹, 『원효의 화쟁논리』, 민족사, 1996.

구건서,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체계」, 『현상과 인식』 90호, 2003.

김영필,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위한 철학적 변론」, 『철학논총』 59, 새한철학회, 2010.

김형인, 「미국의 다문화정책과 교훈」, 『국회도서관보』 325호, 2006.

조수동, 「불교의 평화사상」, 『인간과 사상』 20집, 한국동서철학연구원, 2008.

[Abstract]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Theory of harmonization in Korean Buddhism

Cho, Soo-Dong (Daegu Haany Univ.)

The multicultural society has becoming a real problem in Korea. The ideal multicultural society should hav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For the ideal multicultural society, we need not only change of law and system but also migrants support policy. And we need the education for value which means diversity of culture and race also modification of virtues and communication.

The Wonhyo's theory of harmonization sublate struggle and argument. But it says respect others with compromise and tolerance. According to Wonhyo, people has realistic difference about status, property and so on, but everybody is equal originally. Human are inter-relational beings. To live with inter-relationship, we need the true communication. Through the theory of harmonization which accept diversity and balance the identity, difference, paramartha-satya and samvriti-satya, we expect the ideal multicultural society.

Key Words : multicultural society, communication, Wonhyo, theory of harmonization

투 고 일 : 2010년 2월 20일

심 사 일 : 2010년 3월 19일

계재결정일 : 2010년 4월 9일